

# 법원도서관 장서의 미래 보존 전략 제안을 위한 연구\*

## A Study to Propose Future Preservation Strategies for the Court Library Collection

곽 승 진 (Seungjin Kwak)\*\* , 노 영 희 (Younghee Noh)\*\*\*  
장 인 호 (Inho Chang)\*\*\*\* , 김 정 택 (Jeong Taek Kim)\*\*\*\*\*  
고 재 민 (Jae Min Ko)\*\*\*\*\* , 강 봉 속 (Bongsuk Ka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법원도서관 장서 현황 및 자료보존 환경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5. 법원도서관 장서의 미래 보존전략        |
| 3. 연구절차 및 방법 | 6. 결론 및 제언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장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해 법원도서관 장서와 보존공간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장서의 미래 보존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법원도서관 장서의 장기 보존을 위한 공간 확보, 둘째, 법원도서관 장서의 수집 및 이관 등 보존을 위한 체계 구축, 셋째, 법원사, 법률분야 귀중본, 행정자료 등 사법부 특성화 자료의 영구보존 및 이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수행이다. 이를 통해, 법원도서관은 각급 법원 도서관실을 포함한 법원도서관의 장서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장자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존하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court libraries and aimed to propose a future-oriented strategy for preserving and managing their collections. Based on literature and status analysis, the study presents the future preservation strategy of court library collections in three main categories: First, securing space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court library collections; second, establishing a system for collecting and preserving court library collections; and third, performing digital archiving for the permane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ourt records, valuable legal volumes, administrative materials, and other judiciary-specific resources. Through this, court libraries, including those in various courts, should resolve the issue of insufficient collection storage space, preserve holdings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and activate library use.

키워드: 법원도서관, 장서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공간 관리, 사법부 특화 자료

Court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Digital Archiving, Space Management, Judiciary-specific Resources

\* 본 연구는 2023년 법원행정처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연구의 일부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공동저자)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oinchang@gmail.com / ISNI 0000 0004 6108 9280) (공동저자)

\*\*\*\*\* 배재대학교 기획처 팀장(kjt@pcu.ac.kr / ISNI 0000 0004 6844 3334) (공동저자)

\*\*\*\*\*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jmko@suwon.ac.kr / ISNI 0000 0004 6814 7172)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bs@jbnu.ac.kr / ISNI 0000 0004 6850 982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4년 4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5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2): 33-56,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2.033>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국가도서관이 포화 상태에 이른 장서와 서비스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분관 설립 논의와 실천이 활발한 추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국제방송센터(IBC)를 활용하여 보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립중앙도서관국가문헌보존관은 리사이클링을 통해 30년간 약 1,400만 점의 자료를 수장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국회도서관도 부산에 보존관의 성격이 강한 부산분관을 건립하였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의 첫 번째 지역 분관도서관으로서 국가문헌의 보존 공간 확보 및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3월 개관하였다(노영희 외, 2024).

국가도서관인 법원도서관, 특히 법마루와 대법원열람실, 그리고 각급 법원 도서관 역시 광범위한 장서를 보유하고 전문도서관으로의 서비스 역할과 대국민 서비스를 동시에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들 도서관은 연평균 31,168권의 장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마루와 대법원열람실은 장서 수장 공간의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곧 최대 배가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원도서관이 자료의 재배가와 제적 및 폐기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장서 수장 문제와 더불어 법원도서관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대국민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가도서

관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서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도서관의 협소한 공간 규모 문제와 함께 결합하여 이중고를 낳는다. 이에 따라 장서 대비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시안적으로 제적 및 폐기를 진행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장서의 확대와 이에 기반한 풍성한 정보서비스 기획을 고려하면서도 장서의 보존을 위한 환경 확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도서관의 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장서 보존 및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법원도서관의 장서 수장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법원도서관이 미래의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학 연구, 법률 정보 제공, 국민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장서 수장력

단행본을 중심으로 서가 단 단위 장서 수장력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서가의 각 단은 향후 배가될 자료를 대비하여 가급적 1/3의 여유를 두며 배열하도록 권하고 있는

데 학술도서 배가는 한 단 단위 약 18책, 대중 도서는 약 24책을 권한다(전창호, 2019, 408). 국외에서는 서가 단 단위로 67%에서 75%에만 배가하는 것을 권한다. 즉, 서가 각 단의 34%에서 25%는 여유 공간으로 비워 각 서가 단의 67%에서 75%만을 배가하는 것이다. 서가 각 단의 67%만을 배가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배가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도서관 정보센터 현장 상황에 따라 각 단의 75%만 배가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공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서가 단의 최대 배가율은 86%를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서가 단 단위 최대 배가율인 86%에 이르면 장서 증가 시마다 연쇄적인 장서 재배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Quon & Szkudlarek, 2004, 173).

그런가 하면 윤희윤(2021, 306)은 개가서고의 수장력을 분석하여 산출한 바 있는데 7.7㎡ 당 10,800권, 6.9㎡ 당 8,670권으로 산정하고, 폐가서고의 수장력은 7.7㎡ 당 12,960권, 6.9㎡ 당 10,404권으로 산정하였다. 강봉숙(2022)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장서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의 단위 서가 당 장서 수장력을 분석하여 산출하였는데, 90cm 단위 서가 단의 67%를 배열하는 이상적 배가 권수를 초, 중, 고 각각 46.9권, 32.3권, 28.4권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90cm 단위 서가 단의 75%를 배열하는 현실적 배가 권수를 초, 중, 고 각각 52.8권, 36.4권, 32.0권으로 도출하였다.

## 2.2 장서 공동보존자료관 체계

포화 상태의 장서 수장을 위한 보존자료관

건립 시에는 보존자료관에 이관하는 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 즉 협력네트워크인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관기준 등 보존자료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규정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보존자료관에서는 참여 도서관의 보존 공간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소유권과 함께 우선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더불어서 신속하고 편리한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하여 전체 참여 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보존자료관에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료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곽승진 외, 2020).

## 2.3 선행 연구

공동보존서고 건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공도서관 관중에 집중되어 자료보존 공간 확충과 서비스의 집중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탐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필요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 정보자원, 인력의 효율적 사용을 건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관중 중에서도 『도서관법』을 통해 지역도서관 지원·협력사업과 자료수집 및 보존업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제안하고 설립·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로는 전체적인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에 대한 논의

를 한 신지연과 김유승(2011), 윤희운(2013)의 연구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후 곽승진 외(2020)의 충남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자료관, 부산 지역대표도서관과 관련하여 강은영(2022), 서울 지역대표도서관과 관련한 윤희운과 장덕현(202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현재 장서 관리 현황 분석과 인식 조사 이후 향후 소장장서 규모 예측에 기반한 공동보존서고 규모 제안, 참여도서관 간의 공동이용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로 까지 개방하는 방식으로서의 운영 방안 제안이 주를 이룬다.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와 관련해서는 윤희운이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 모형 연구(2014),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중요성 및 타당성 연구(2014) 등을 통해 공동보존서고의 설립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국가도서관 중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법원도서관과 관련된 보존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국외의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다. 법학 전문도서관의 장서 서비스와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로는 Garner(2021)가 옥스퍼드 대학 법학 전문도서관인 Bodleian Law Library의 공간 재구조화 과정에 장서를 이전해서 보존하고 서비스를 보강한 사례를 소개한 것이 있다. 1964년 개관한 옥스퍼드대학 법학 전문도서관을 2010년에서 2020년에 걸쳐 대대적인 공간 재구성을 단계적으로 실시한 결과 2021년부터 1800년의 영국 의회 기록을 포함한 장서를 전면 개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원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에 관련된 연구가 소수 수행된 바 있다. 첫째, 노영희와 노지윤(2021)은 국내외 법학 관련 도서관들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법원도서관의 비전은 크게 각국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과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은 1)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3)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4)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5)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로 제시하였다. 정책문서에 기반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을 통해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곽승진 외(2021)는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와 법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종합적으로, 국내의 선행연구는 공동보존서

고의 설립과 운영 방안,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공간 활용, 그리고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과 공공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도서관의 자원과 공간을 최적화하고,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개발을 넘어서 미래의 장서보존을 포함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법원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장서 관리 전략에 기반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현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 장서 보존 및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해 법원도서관의 장서 보존 전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장서 현황을 기반으로 한 보존 전략 수립 연구 및 법원도서관 특유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법원도서관의 장서 현황을 파악하여 보존 전략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법마루와 대법원열람실을 포함한 전국 법원도서관의 장서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장서현황 변화를 기반으로 장서포화도를 측정하여 장서 수장 공간의 현재 상태와 미래 수요를 예측하며, 법원도서관의 현재 자료보존 환

경을 조사하여 장서포화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앞선 두 단계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법원도서관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존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법원도서관의 장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 4. 법원도서관 장서 현황 및 자료보존 환경 분석

법원도서관 장서 현황 분석은 법마루, 대법원 열람실, 각급 법원 도서실으로 구분하여 각 도서관의 장서의 양적 현황을 분석하였다.

### 4.1 법원도서관 장서 현황

#### 4.1.1 일반 현황

2023년 6월 기준,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479,829권이다. 그중에서 법률도서는 392,882권(81.9%)으로 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행국가별로 법률도서는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순으로 소장하고 있고, 일반도서는 국내서, 서양서, 동양서 순으로 소장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 479,829권 중 국내서는 233,196권(48.6%), 동양서는 129,483권(27.0%), 서양서는 117,150권(24.4%)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법마루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220,035권이며, 법률도서는 161,037권(73.2%)으로 법률도서가 장서의 4분의 3을

〈표 1〉 법원도서관 장서 현황

구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비율(%)
법마루	법률도서	59,789	51,378	49,870	161,037	73.2
	일반도서	52,202	3,261	3,535	58,998	26.8
	계	111,991	54,639	53,405	220,035	100.0
	비율(%)	50.9	24.8	24.3	100.0	
대법원 열람실	법률도서	96,693	73,055	62,097	231,845	89.2
	일반도서	24,512	1,789	1,648	27,949	10.8
	계	121,205	74,844	63,745	259,794	100.0
	비율(%)	46.7	28.8	24.5	100.0	
계	법률도서	156,482	124,433	111,967	392,882	81.9
	일반도서	76,714	5,050	5,183	86,947	18.1
	계	233,196	129,483	117,150	479,829	100.0
	비율(%)	48.6	27.0	24.4	100.0	

(2023. 6. 30. 기준 / 단위: 권)

차지하고 있다. 법률도서는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순으로 소장하고 있고, 일반도서는 국내서, 서양서, 동양서 순으로 소장하고 있다. 법마루 전체 장서 220,035권 중 국내서는 111,991권(50.9%)으로 국내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법원열람실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259,794권이며, 법률도서는 231,845권(89.2%)으로 법률도서가 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률도서 소장은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순이다. 일반도서 소장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순이다. 대법원열람실의 전체 장서 259,794권 중 국내서는 121,205권(46.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각급 법원 도서관과 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1,486,193권이며, 세부 사항은 〈표 2〉와 같다.

#### 4.1.2 주제별 현황

2023년 6월 기준,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장서의 주제별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법률도서는 제법, 법률총류 등 순으로 소장하고 있었다. 법률도서 중 국내서와 서양서는 제법, 법률총류 등 순, 동양서는 제법, 민법 등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도서는 사회과학, 문학 등 순이다. 일반도서 중 국내서는 사회과학, 문학 등의 순, 동양서는 사회과학, 총류 등 순, 서양서는 예술, 사회과학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먼저, 법마루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주제별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법률도서는 제법, 법률총류 등 순으로 소장하고 있었다. 법률도서 중 국내서는 제법, 법률총서 등의 순, 동양서와 서양서는 제법, 민법 등 순으로 소장하고 있다. 일반도서는 사회과학, 문학 등 순이다(〈표 4〉 참조).

2023년 6월 기준, 대법원열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주제(분류)별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법률도서는 제법, 법률총류 등 순으로, 일반도서는 사회과학, 총류 등 순으로 소장하고 있었다(〈표 5〉 참조).

〈표 2〉 각급 법원 도서관 장서 현황

구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서울고등법원	59,644	34,372	9,846	103,862
대전고등법원	33,429	16,364	2,010	51,803
대구고등법원	27,638	18,075	3,215	48,928
부산고등법원	35,589	19,259	2,192	57,040
광주고등법원	32,756	18,827	3,027	54,610
수원고등법원	26,055	11,831	1,169	39,055
특허법원	17,029	3,286	1,000	21,315
서울중앙지방법원	8,521	45	282	8,848
서울가정법원	7,199	1	0	7,200
서울행정법원	20,312	8,254	886	29,452
서울회생법원	1,728	142	96	1,9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847	7,061	152	28,0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668	6,522	169	27,359
서울북부지방법원	21,022	4,591	168	28,781
서울서부지방법원	22,246	5,738	174	28,158
의정부지방법원	36,934	6,098	223	43,255
인천지방법원	59,364	14,843	537	74,744
인천가정법원	3,849	455	78	4,382
수원지방법원	89,312	7,909	337	97,558
수원가정법원	1,231	504	10	1,745
춘천지방법원	72,474	16,201	281	88,956
대전지방법원	59,062	10,717	283	70,062
대전가정법원	2,158	7	4	2,169
청주지방법원	31,205	9,037	157	40,399
대구지방법원	77,217	13,361	98	90,676
대구가정법원	7,323	1,370	70	8,763
부산지방법원	35,880	3,996	112	39,988
부산가정법원	1,894	37	12	1,943
울산지방법원	25,970	8,204	185	34,359
울산가정법원	302	0	0	302
창원지방법원	91,481	19,202	397	111,080
광주지방법원	69,107	8,871	184	78,162
광주가정법원	3,984	578	63	4,625
전주지방법원	73,726	16,659	360	90,745
제주지방법원	25,518	8,185	163	33,866
사법정책연구원	7,844	55	131	8,030
법원공무원연구원	26,089	723	135	26,947
계	1,156,607	301,380	28,206	1,486,193

(2023. 6. 30. 기준 / 단위: 권)

〈표 3〉 법원도서관 장서의 주제(분류)별 현황

구분	주제(분류)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비율(%)
법률도서	법률총류	23,081	18,760	17,633	59,474	12.4
	법제사	1,271	1,534	1,311	4,116	0.9
	제법	38,965	27,289	22,167	88,421	18.4
	국제법	6,992	5,489	11,578	24,059	5.0
	헌법	9,355	5,883	7,647	22,885	4.8
	행정법	7,354	5,957	4,331	17,642	3.7
	형법	11,982	9,416	7,783	29,181	6.1
	상법	9,637	9,525	8,260	27,422	5.7
	사법소송절차	8,820	4,796	3,455	17,071	3.6
	민사소송법	9,991	8,618	6,369	24,978	5.2
	형사소송법	5,238	4,602	2,967	12,807	2.7
	민법	18,577	19,625	14,363	52,565	11.0
	판례총서	5,219	2,939	4,103	12,261	2.6
<b>법률 소계</b>	<b>156,482</b>	<b>124,433</b>	<b>111,967</b>	<b>392,882</b>	<b>81.9</b>	
일반도서	총류	6,151	703	629	7,483	1.6
	철학	3,910	366	178	4,454	0.9
	종교	768	79	108	955	0.2
	사회과학	30,309	2,740	1,495	34,544	7.2
	어학	990	146	72	1,208	0.3
	순수과학	1,763	44	24	1,831	0.4
	응용과학	9,424	467	268	10,159	2.1
	예술	2,305	35	1,579	3,919	0.8
	문학	13,832	39	215	14,086	2.9
	역사	7,262	431	615	8,308	1.7
<b>일반 소계</b>	<b>76,714</b>	<b>5,050</b>	<b>5,183</b>	<b>86,947</b>	<b>18.1</b>	
<b>계</b>	<b>233,196</b>	<b>129,483</b>	<b>117,150</b>	<b>479,829</b>	<b>100.0</b>	
<b>비율(%)</b>	<b>48.6</b>	<b>27.0</b>	<b>24.4</b>	<b>100.0</b>		

(2023. 6. 30. 기준 / 단위: 권)

〈표 4〉 법마루 장서의 주제(분류)별 현황

구분	주제(분류)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비율(%)
법률도서	법률총류	10,212	6,580	6,585	23,377	10.6
	법제사	495	545	469	1,509	0.7
	제법	11,497	11,254	10,639	33,390	15.2
	국제법	2,407	2,183	5,331	9,921	4.5
	헌법	3,549	2,245	3,695	9,489	4.3
	행정법	2,752	2,427	1,769	6,948	3.2
	형법	5,020	4,269	3,689	12,978	5.9
	상법	3,218	4,120	3,518	10,856	4.9
	사법소송절차	3,967	1,723	1,568	7,258	3.3
	민사소송법	4,502	4,093	3,290	11,885	5.4
	형사소송법	2,248	2,131	1,516	5,895	2.7
	민법	6,835	8,951	6,906	22,692	10.3
	판례총서	3,087	857	895	4,839	2.2
<b>법률 소계</b>	<b>59,789</b>	<b>51,378</b>	<b>49,870</b>	<b>161,037</b>	<b>73.2</b>	



구분	주제(분류)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비율(%)
일반도서	총류	3,311	246	329	3,886	1.8
	철학	3,407	284	110	3,801	1.7
	종교	688	69	79	836	0.4
	사회과학	16,844	1,896	643	19,383	8.8
	어학	770	86	39	895	0.4
	순수과학	1,267	16	16	1,299	0.6
	응용과학	7,048	385	149	7,582	3.4
	예술	2,055	22	1,564	3,641	1.7
	문학	12,713	23	119	12,855	5.8
	역사	4,099	234	487	4,820	2.2
	일반 소계	52,202	3,261	3,535	58,998	26.8
계	111,991	54,639	53,405	220,035	100.0	
비율(%)	50.9	24.8	24.3	100.0		

(2023. 6. 30. 기준 / 단위: 권)

<표 5> 대법원열람실 장서의 주제(분류)별 현황

구분	주제(분류)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비율(%)
법률도서	법률총류	12,869	12,180	11,048	36,097	13.9
	법제사	776	989	842	2,607	1.0
	제법	27,468	16,035	11,528	55,031	21.2
	국제법	4,585	3,306	6,247	14,138	5.4
	헌법	5,806	3,638	3,952	13,396	5.2
	행정법	4,602	3,530	2,562	10,694	4.1
	형법	6,962	5,147	4,094	16,203	6.2
	상법	6,419	5,405	4,742	16,566	6.4
	사법소송절차	4,853	3,073	1,887	9,813	3.8
	민사소송법	5,489	4,525	3,079	13,093	5.0
	형사소송법	2,990	2,471	1,451	6,912	2.7
	민법	11,742	10,674	7,457	29,873	11.5
	관례총서	2,132	2,082	3,208	7,422	2.9
	법률 소계	96,693	73,055	62,097	231,845	89.2
일반도서	총류	2,840	457	300	3,597	1.4
	철학	503	82	68	653	0.3
	종교	80	10	29	119	0.0
	사회과학	13,465	844	852	15,161	5.8
	어학	220	60	33	313	0.1
	순수과학	496	28	8	532	0.2
	응용과학	2,376	82	119	2,577	1.0
	예술	250	13	15	278	0.1
	문학	1,119	16	96	1,231	0.5
	역사	3,163	197	128	3,488	1.3
	일반 소계	24,512	1,789	1,648	27,949	10.8
계	121,205	74,844	63,745	259,794	100.0	
비율(%)	46.7	28.8	24.5	100.0		

(2023. 6. 30. 기준 / 단위: 권)

#### 4.2 법원도서관 장서 변화 분석

법원도서관의 장서 변화 분석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단행본)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자료 유형별, 수집 방법별 증감 추이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 평균 21,469권, 전년대비 연평균 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가 장서 수와 증가율은 서양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률도서의

자료 유형별 최근 3년간 증감 추이를 조사·분석한 결과, 연 평균 12,830권, 전년대비 연평균 3.6% 증가하였다. 증가 장서 수와 증가율은 서양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반도서의 자료 유형별 최근 3년간 증감 추이를 조사·분석한 결과, 연 평균 8,639권, 전년대비 연평균 13.0% 증가하였다. 장서 수는 국내서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서양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참조).

〈표 6〉 최근 4년간 법원도서관 장서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151,737	110,467	83,775	345,979	157,967	115,444	91,002	364,413
일반도서	52,458	4,222	2,522	59,202	58,641	5,141	4,899	68,681
계	204,195	114,689	86,297	405,181	216,608	120,585	95,901	433,094

구분	2021년				2022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149,276	119,379	96,245	364,900	154,310	122,785	107,374	384,469
일반도서	70,536	4,498	4,988	80,022	75,010	4,966	5,143	85,119
계	219,812	123,877	101,233	444,922	229,320	127,751	112,517	469,588

〈표 7〉 법원도서관 장서의 최근 3년간 증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6,230	4,977	7,227	18,434	-8,691	3,935	5,243	487	5,034	3,406	11,129	19,569
일반도서	6,183	919	2,377	9,479	11,895	-643	89	11,341	4,474	468	155	5,097
계	12,413	5,896	9,604	27,913	3,204	3,292	5,332	11,828	9,508	3,874	11,284	24,666

구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권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858	4,106	7,866	12,830	0.7	3.6	8.7	3.6
일반도서	7,517	248	874	8,639	12.8	6.6	33.1	13.0
계	8,375	4,354	8,740	21,469	4.0	3.7	9.3	5.1

(각 연도 12. 31. 기준 / 단위: 권)

법원도서관 장서의 증가 및 제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도서와 국내서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권수 및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대법원열람실 장서 제적에 기인한다.

법마루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반도서의 자료 유형별 최근 3년간 증감 추이를 조사·분석한 결과, 연 평균 9,037권, 전년대비 연평균 24.0% 증가하였다.

대법원열람실 소장 법률도서의 자료 유형별

최근 3년간 증감 추이를 조사·분석한 결과, 연 평균 1,889권, 전년대비 연평균 0.9% 증가하였다. 증가 장서 수와 증가율 또한 서양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열람실 소장 일반도서의 자료 유형별 최근 3년간 증감 추이를 조사·분석한 결과, 연 평균 398권, 전년대비 연평균 1.3% 감소하였다(〈표 8〉, 〈표 9〉, 〈표 10〉, 〈표 11〉 참조).

〈표 8〉 법원도서관 장서의 최근 3년간 증가(구입+기증)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6,230	4,977	7,227	18,434	6,602	3,952	5,386	15,940	5,165	3,556	11,130	19,851
일반도서	6,183	919	2,377	9,479	14,118	169	91	14,378	7,130	646	155	7,931
계	12,413	5,896	9,604	27,913	20,720	4,121	5,477	30,318	12,295	4,202	11,285	27,782

〈표 9〉 법원도서관 장서의 최근 3년간 제적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0	0	0	0	15,293	17	143	15,453	131	150	1	282
일반도서	0	0	0	0	2,223	812	2	3,037	2,656	178	0	2,834
계	0	0	0	0	17,516	829	145	18,490	2,787	328	1	3,116

〈표 10〉 법마루 장서의 최근 3년간 증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3,168	3,115	4,870	11,153	2,663	1,952	3,039	7,654	2,929	2,325	8,762	14,016
일반도서	5,747	841	2,341	8,929	11,296	-664	82	10,714	6,706	626	135	7,467
계	8,915	3,956	7,211	20,082	13,959	1,288	3,121	18,368	9,635	2,951	8,897	21,483

구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권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2,920	2,464	5,557	10,941	5.6	5.4	16.1	8.2
일반도서	7,916	268	853	9,037	23.8	13.1	84.8	24.0
계	10,836	2,732	6,410	19,978	12.6	5.7	17.8	11.7

(각 연도 12. 31. 기준 / 단위: 권)

〈표 11〉 대법원열람실 장서의 최근 3년간 증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3,062	1,862	2,357	7,281	-11,354	1,983	2,204	-7,167	2,105	1,081	2,367	5,553
일반도서	436	78	36	550	599	21	7	627	-2,232	-158	20	-2,370
계	3,498	1,940	2,393	7,831	-10,755	2,004	2,211	-6,540	-127	923	2,387	3,183

구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권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법률도서	-2,062	1,642	2,309	1,889	-1.9	2.4	4.1	0.9
일반도서	-399	-20	21	-398	-1.5	-0.9	1.3	-1.3
계	-2,461	1,622	2,330	1,491	-1.9	2.3	4.0	0.6

(각 연도 12. 31. 기준 / 단위: 권)

### 4.3 법원도서관 장서 보존환경

#### 4.3.1 법마루

2022년 12월 기준, 법마루의 자료보존 공간 4,633.7㎡에 설치된 서가 수는 239조, 12,834단, 배가율은 67.2%, 잔여서가(단)는 4,399단으로 나타났다. 자료실에 설치된 서가 수는 100조, 6,846단, 배가율은 70.9%, 잔여서가(단)는 1,994단이며, 보존서고에 설치된 서가 수는 139조, 5,988단, 배가율은 63.0%, 잔여서가(단)는 2,405단으로 나타났다. 법마루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212,608권이 전체 서가의 67.2%를 차지하고 있어 “현 배가율: 현 소장권수 = 100: 최대 소장권수” 방식으로 산정하여 법마루에서 소장할 수 있는 단행본의 총 권수는 316,381권

으로 추정되며, 법마루 잔여 서가에 추가로 배가할 수 있는 단행본 수는 103,772권이다. 최근 3년간 법마루의 단행본 장서 평균 증가 권수는 23,453권이다. 현재의 법마루 자료보존공간(면적), 서가 규모 및 배가율, 최근 3년간 단행본 평균 증가권수 23,453권을 반영한 2030년까지의 법마루 장서 수장능력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25년 말에는 최대 배가율 권고치인 86%를 넘어서며, 2027년에는 100% 배가율을 넘어 자료 제작 없이는 자료를 배가할 수 없다(〈표 12〉 참조).

#### 4.3.2 대법원열람실

대법원열람실의 자료보존 공간 총 2,561㎡에 설치된 서가 수는 588조, 11,949단, 배가율

〈표 12〉 법마루 장서 수장능력 변화 추이 예측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도별 소장권수(권)	212,608	236,061	259,514	282,967	306,420	329,873	353,326	376,779	400,232
추가 배가 가능권수(권)	103,772	80,319	56,866	33,413	9,960	-13,493	-36,946	-60,399	-83,852
연도별배가율(%)	67.2	74.6	82.0	89.4	96.9	104.3	111.7	119.1	126.5

※ 서가의 증설, 자료 제작(폐기)이 없다는 전제하에 산정,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은 86.1%, 잔여서가(단)는 1,664단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열람실 3층에 설치된 서가 수는 185조, 3,917단, 배가율은 61.6%, 잔여 서가(단)는 1,504단이며, 대법원열람실 4층에 설치된 서가 수는 403조, 8,032단, 배가율은 98.0%, 잔여 서가(단)는 160단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준, 대법원열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256,980권이 전체 서가의 86.1%를 차지하고 있어 대법원열람실에서 소장할 수 있는 단행본의 총 권수는 298,467권으로 추정되며, 대법원열람실 잔여 서가에 배가할 수 있는 단행본 수는 41,487권이다. 2030년까지의 대법원열람실 장서 수장능력 변화 추이를 산출해 보면, 2028년에는 100% 배가율을 넘어서 자료 제적 없이는 자료를 배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표 13〉 참조).

#### 4.4 시사점

현재의 자료보존공간, 서가 규모 및 배가율, 최근 3년간 단행본 평균 증가 권수를 고려한 법원도서관의 장서 수장능력 변화 추이를 예측한 결과, 첫째, 법마루는 2025년 말에는 최대 배가율 권고치인 86%를 넘어서며, 2027년에는 100% 배가율을 넘어서 자료 제적 및 폐기 없이는 더 이상 자료를 배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대법원열람실은 2022년도 말에 이미 최대 배가율

86%를 초과하였으며, 2028년에는 100% 배가율을 넘어서 자료 제적 및 폐기 없이는 자료를 배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도서관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마루는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자료 재배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2027년부터는 지속적 자료 재배가와 더불어 수집한 자료의 양만큼 자료를 제적(폐기)하여야 한다. 대법원열람실은 2028년부터는 지속적인 자료 재배가와 더불어 수집한 자료의 양만큼 자료를 제적(폐기)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 자료 재배가는 이용자 봉사에 투입되어야 할 도서관 인력을 자료 재배가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이용자 봉사의 질을 악화시켜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에 별도의 장서 수장공간을 확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원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서 장서 규모가 타 국가도서관의 장서 규모에 비해 많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도서관은 장서의 제적(폐기)보다는 확충하여야 할 시기에 장서를 제적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별도의 장서 수장공간을 확보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별도의 장서 수장공간 확보를 통해 각급 법원 도서관의 장서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표 13〉 대법원열람실 장서 수장능력 변화 추이 예측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도별 소장권수(권)	256,980	264,695	272,410	280,125	287,840	295,555	303,270	310,985	318,700
추가 배가 가능권수(권)	41,487	33,772	26,057	18,342	10,627	2,912	-4,803	-12,518	-20,233
연도별 배가율(%)	86.1	88.7	91.3	93.9	96.4	99.0	101.6	104.2	106.8

※ 서가의 증설, 자료 제적(폐기)이 없다는 전제하에 산정,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이를 고려할 때, 첫째,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원사(사료), 법률 분야의 귀중본, 희귀본, 행정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존 및 복원,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보존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법원도서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열람·대출 서비스 외에도 강연 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공유 및 소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셋째, 대법원열람실의 경우, 대법원 내 근무자로 이용자가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용자 공간이 너무 열악하여 이용 활성화와 도서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이용자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법원도서관이 상기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법자료의 수집, 축적, 보존이라는 법원도서관의 책무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5. 법원도서관 장서의 미래 보존전략

대부분의 도서관 (공동)보존센터에서는 ‘관할 내 도서관의 인쇄자료 및 디지털자료의 (공동)보존 및 활용 촉진’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내 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수장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또한, 체계적·집중적 보존 및 복원을 통해 수장자료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보존을 하며, 당대뿐 아니라 후대 이용을 위해 특성화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있다. 법원도서관도 사법 분야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책무 및 역할을 수행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상기에서 제시된 보존센터의 사명과 전략을 참조하여 미래 보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장서의 미래 보존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원도서관 장서의 장기 보존을 위한 공간 확보, 둘째, 법원도서관 장서의 수집(이관 등) 및 보존을 위한 체계 구축, 셋째, 법원사(사료), 법률분야 귀중본, 행정자료 등 사법부 특성화 자료의 영구보존 및 이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수행이다.

### 5.1 장서의 장기 보존을 위한 공간 확보

#### 5.1.1 장서 수장공간 확보의 필요성

최근 3년간 법원도서관 장서는 연평균 31,168권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마루는 연평균 23,453권, 대법원열람실은 연평균 7,715권이 증가하고 있다. 법마루는 2025년에 최대 배가율 권고치 86%를 넘어서며, 2027년에는 100%를 넘어서 추가 자료를 배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대법원열람실은 2023년 현재 최대 배가율 권고치 86%를 넘어서었으며, 2028년에는 100%를 넘어서 추가 자료를 배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표 14〉 참조).

따라서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표 14〉 법원도서관 장서의 연평균 증가권수 및 연도별 배가율

구분	연평균 증가권수(권)	연도별 배가율(%)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법마루	23,453	67.2	74.6	82.0	89.4	96.9	104.3	111.7	119.1	126.5
대법원열람실	7,715	86.1	88.7	91.3	93.9	96.4	99.0	101.6	104.2	106.8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적절한 장서 수장공간을 확보하여 법마루와 대법원열람실의 장서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원도서관은 각급 법원 도서관의 장서 수장공간 부족 문제 또한 해결하여야 한다.

#### 5.1.2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장서 수장공간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완공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의 자료보존환경을 반영하여 필요 수장공간을 10년, 15년 20년 단위로 산정한다. 최대 배가율 권고치 86% 도달 연도를 기준으로 필요 수장공간을 산정하며, 법마루 2025년, 대법원열람실 2023년이다. 장서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 권수를 기준으로 필요 수장공간을 산정하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의 이관 이후 복본의 제작(폐기)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법마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 권수인 23,453권, 대법원열람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 권수인 7,715권을 이관하며, 각급 법원 도서관으로부터의 이관도 고려해야 한다. 단, 각급 법원 도서관으로부터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 이관되는 자료는 법마루와 대법원 열람실에서 이관되는 자료와 대부분 복본이라는 전제하에 필요 수장공간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필요 수장공간 산정은 서가의 단 단위로 산

정하며, 법원도서관의 서가 1단 당 100% 배가 권수(법률도서 30권, 일반도서 38권) 기준을 적용했다. 자료의 이관은 법원도서관 이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률도서와 일반도서의 서가 1단 당 배가 권수 평균인 34권을 서가 1단 당 배가 권수로 적용했다. 효율적 자료 수장을 위해 수장방식은 자료의 주제가 아닌 크기별로 서가에 100% 배열한다는 전제하에 필요 수장공간을 산정했다. ReCAP, MLAC, NRLF 등 대부분의 외국 보존센터에서는 효율적 공간 활용과 서가 재배가에 따른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의 주제가 아닌 크기별로 배가하고 있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에서 장서 수장공간 산정 전제조건에 따라 자료를 수장할 경우, 10년 후인 2032년에는 264,774권을 수장할 수 있는 7,787개의 서가 단이 필요하며, 15년 후인 2037년에는 420,614권을 수장할 수 있는 13,288개의 서가 단이 필요하며, 20년 후인 2042년에는 576,454권을 수장할 수 있는 16,955개의 서가 단이 필요하다.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장서 수장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 건물의 규모, 공간(보존 공간, 이용자 공간, 사무 공간 등)의 배분, 보존서가의 유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원 도서관과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가 15

년 이상 장서를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450,000권에서 500,000권을 수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서가 단으로는 13,235개에서 14,706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동일 규모의 장서를 수장하더라도 보존서가의 유형에 따라 공간의 면적, 층고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도입할 보존서가의 유형을 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원도서관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가 채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존서가 유형은 일반서가, 수동고밀집서가(HM: Harvard Model), 밀집서가(모빌렉), 자동고밀집서가(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가 있다. 보존서가 유

형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에 적합한 보존서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표 15〉 참조).

### 5.2 장서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체계 구축

법원도서관 장서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원도서관(법마루, 대법원열람실)과 각급 법원 도서실로부터의 자료 수집(이관 등)부터 보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자료 수집(이관 등)부터 보존을 위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5.2.1 장서의 수집·보존 체계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장서의 수

〈표 15〉 법원도서관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연도별 필요 수장공간 산정

구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이관 권수	법마루			23,453	23,453	23,453	23,453	23,453	23,453	23,453	23,453
	대법원 열람실	7,715	7,715	7,715	7,715	7,715	7,715	7,715	7,715	7,715	
	계	7,715	7,715	31,168	31,168	31,168	31,168	31,168	31,168	31,168	
	누적 권수	7,715	15,430	46,598	77,766	108,934	140,102	171,270	202,438	233,606	264,774
필요 서가단수		227	454	1,371	2,287	3,204	4,121	5,037	5,954	6,871	7,787

구분		연도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이관 권수	법마루	23,453	23,453	23,453	23,453	23,453	<b>23,453</b>	23,453	23,453	23,453	23,453
	대법원 열람실	7,715	7,715	7,715	7,715	7,715	<b>7,715</b>	7,715	7,715	7,715	7,715
	계	31,168	31,168	31,168	31,168	31,168	<b>31,168</b>	31,168	31,168	31,168	31,168
	누적 권수	295,942	327,110	358,278	389,446	420,614	<b>451,782</b>	482,950	514,118	545,286	576,454
필요 서가단수		8,704	9,621	10,538	11,454	12,371	<b>13,288</b>	14,204	15,121	16,038	16,955

(각 연도 12. 31. 기준 / 단위: 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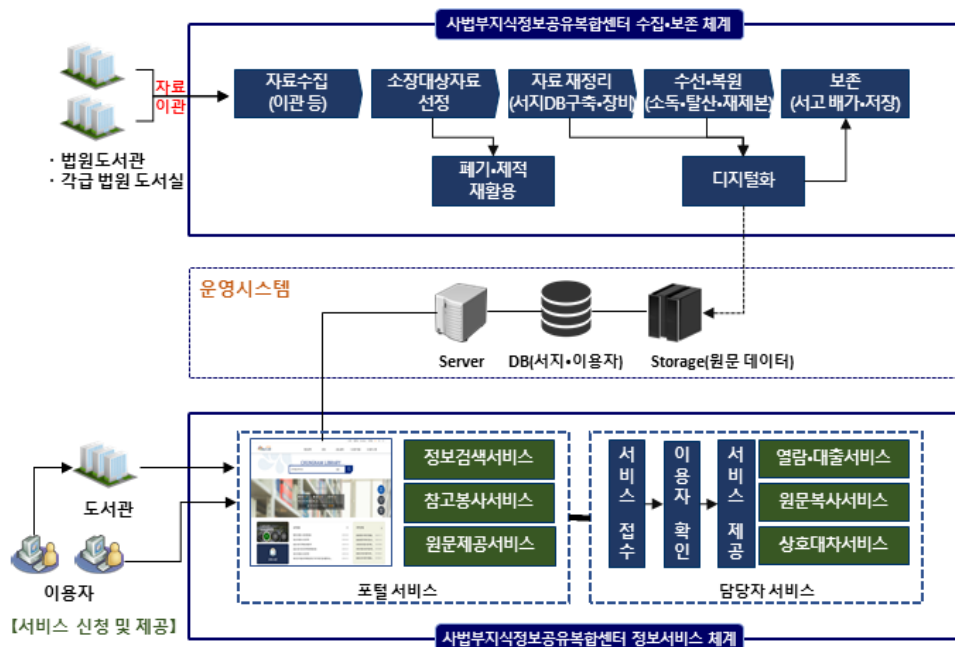
집·보존 체계는 크게 자료 수집, 소장대상자료 선정, 자료 재정리, 수선·복원, 보존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자료의 수집에서 보존까지의 과정에서 자료의 폐기·제적·재활용과 법원사(사료), 법률분야 귀중본, 행정자료 등 사법부 특성화 자료의 영구보존 및 이용을 위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규정 및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담당자 교육 및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

센터 운영시스템의 개발,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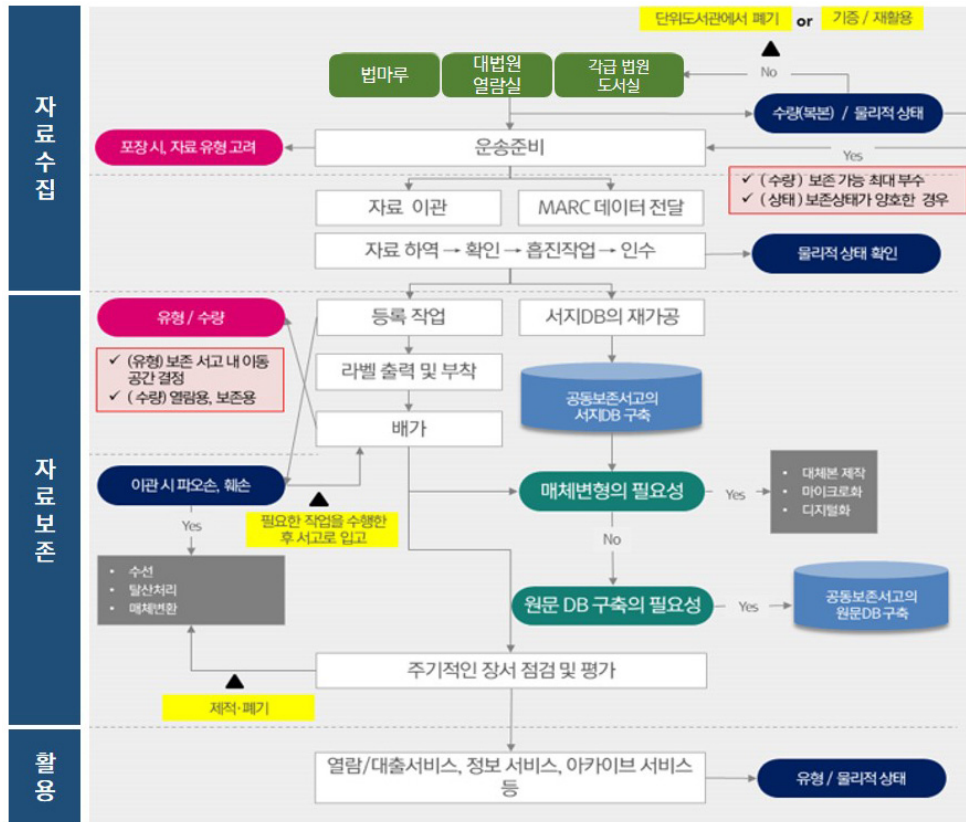
다음은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자료 수집·보존·활용 프로세스 예시이다.

### 5.2.2 운영시스템 구축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이관 받는 자료의 수집, 보존, 활용 등 자료보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운영시스템 개발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법원도서관(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과, 둘째, 법원도서관(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보존업무에 적합하게 업데이트하고 사법부 지



〈그림 1〉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장서의 수집·보존 및 정보서비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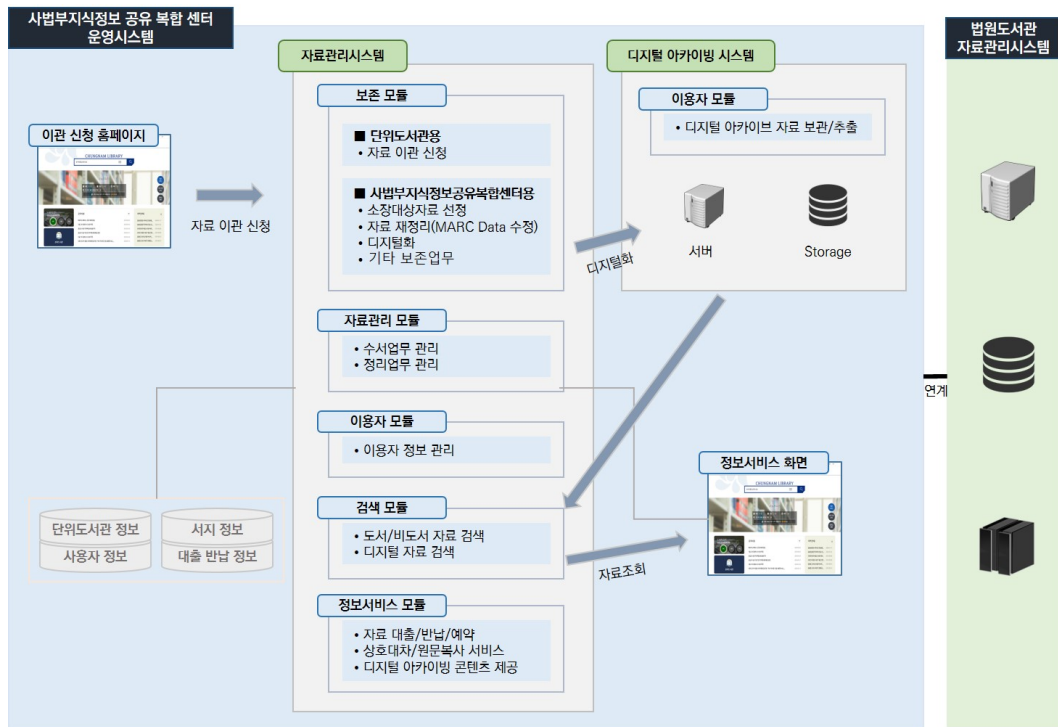
〈그림 2〉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자료 수집 · 보존 · 활용 프로세스(예시)

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운영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여 연계하는 방식이다. 법원도서관이 법마루, 대법원열람실, 각급 법원 도서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할 경우,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운영시스템을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운영시스템에서 구현해야 할 최소한의 기능은 이관 신청 기능, 소장대상 자료 선정 기능, 자료의 재정리 기능, 디지털 아카이빙 기능, 검색기능, 정보서비스 제공기능이며,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운영시스템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 5.3 사법부 특성화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법부 특성화 자료를 중심으로 장기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영구적으로 보존·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도 장기적 보존가치가 있는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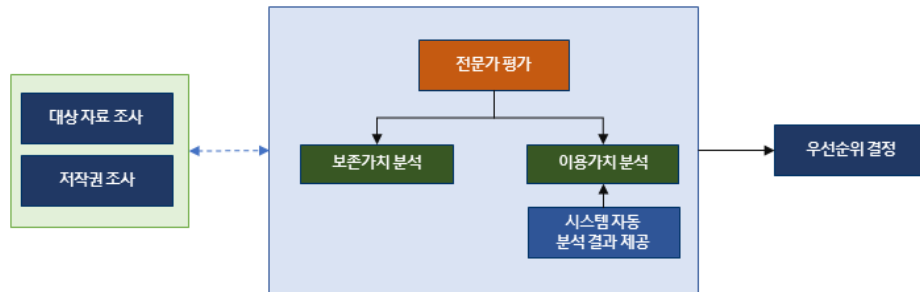
〈그림 3〉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운영시스템 기본 개념도

첫째, 디지털 아카이빙 대상 자료로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법원사 자료(사료), 법률분야 귀중본, 행정자료 등 사법부 특성화 자료를 중심으로 장기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하여야 한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쇄자료(단행본, 연구보고서, 논문, 연속간행물 등), 사진, 그림, 브로슈어, 팜플렛, 시청각자료(CD, DVD 등), 실물자료, 디지털자료, 구술자료 등이 있다.

둘째, 디지털 아카이빙 대상 자료 선정기준 및 평가모델이 필요하다. 미래에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방법, 그 자원의 보존과 접근을 위한 시기를 예상하는 방법, 지속적인 갱신을 요구하는 자원의 완전성과 책임성을 보장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카이브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디지털 아카이빙 대상 자료의 선정은 보존가치, 이용가치, 내재적 가치, 생산자의 권위, 저작권, 보존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아카이빙 대상 자료 우선순위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모델 및 순서는, ① 디지털 아카이빙 우선 대상 자료 선정 → ② 저작권 소유 여부 조사 → ③ 보존가치, 이용가치 등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 ④ 전문가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료에 대한 재조사 또는 우선순위 설정에서 제외 → ⑤ 우선순위 설정 순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디지털 아카이빙 우선순위 선정 평가모델

넷째, 디지털 아카이빙 수행 방안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은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방안과 용역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다섯째,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의 영구적 보존을 위하여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장기적 차원에서 마이그레이션과 에뮬레이션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디지털 파일의 용량, 안정적 보존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화된 파일의 아카이빙은 서버와 연계된 별도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중복작업 배제를 통한 예산 절감 및 기술적 측면에서 자료의 디지털화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6. 결론 및 제언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국가도서관 역시 지속적 장서 증가와 서비스 확대 요구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이 분관과 보존관 건립, 디지털 아카이빙

등으로 미래 장서 보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도서관 역시 이러한 화두에 발맞추어 미래 장서 보존과 서비스 방향성을 재탐색해야 할 시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법마루, 대법원열람실 등 장서 현황과 자료보존공간, 서가 규모 및 배기율, 최근 3년간 단행본 평균 증가권수를 분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도서관의 장서 수장능력 변화 추이를 예측한 결과, 법마루와 대법원열람실은 가까운 시기에 지속적으로 자료 재배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자료 재배가와 더불어 수집한 자료의 양만큼 자료를 제적(폐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료 재배가는 이용자 봉사에 투입되어야 할 도서관 인력을 자료 재배가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이용자 봉사의 질을 악화시켜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도서관은 별도의 장서 수장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원도서관이 일정부분 법학 관련 전문도서관의 성격을 가진 도서관이긴 하지만 국가도서관으로서 장서 규모가 타 국립도서관의 장서 규모에 비해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법원도

서관은 장서의 제적 및 폐기보다는 장서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장서 수장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원도서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열람·대출 서비스 외에도 강연 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공유 및 소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원도서관이 상기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도서관으로서 사법자료의 수집, 축적, 보존이라는 법원도서관의 책무 수행과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접 공간에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다음 전략에 기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법원도서관은 향후 15년 이상 장서를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450,000권에서 500,000권을 수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법원도서관은 체계적·효율적 장서 수집·보존을 위하여 장서 수집·

보존 체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법원사 자료(사료), 법률분야 귀중본, 행정자료 등 사법부 특성화 자료를 중심으로 장기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사법부 국가도서관이자 국내 최고의 법학 분야 전문도서관으로 법원도서관의 장서 및 장서 보존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장서 관리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장서를 중심으로 한 법원도서관의 발전 방안을 그려볼 수 있었다. 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정적으로 멈추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성장하는 유기체로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한 데 의의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도서관이자 전문도서관으로 특수성과 양면성을 지닌 법원도서관의 미래상을 구체화해 본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은 물론 다양한 국가도서관과 각 주제 분야 대표적 전문도서관의 현장에 기반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봉숙 (2022). 학교도서관 장서 배가를 위한 소요 서가 산출에 대한 논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347-364.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347>
- 강은영 (2022).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연구: 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55-76.
- 곽승진, 노영희, 강은영, 김정택, 박우정 (2020).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정책 수립을 위한 사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27-51. <http://doi.org/10.4275/KSLIS.2020.54.4.027>
- 곽승진, 노영희, 강은영, 김정택, 박우정 (2020).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보존서고 분석에 기초한 공동보존

- 자료관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4), 191-212.  
<http://doi.org/10.14699/kbiblia.2020.31.4.191>
- 곽승진, 노영희, 장인호, 김정택, 신영지 (2021).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1-20. <http://doi.org/10.16981/kliss.52.3.202109.1>
- 노영희, 강봉숙, 곽승진, 장인호 (2024).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장서 및 보존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1), 27-45. <http://doi.org/10.16981/kliss.55.1.202403.27>
- 노영희, 노지윤 (2021).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4), 55-78. <http://doi.org/10.16981/kliss.52.4.202112.55>
- 신지연, 김유승 (2011).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29-150.
- 윤희운 (2013).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51-74.  
<http://doi.org/10.16981/kliss.44.3.201309.51>
- 윤희운 (2013).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5-26.  
<http://doi.org/10.16981/kliss.44.2.201306.5>
- 윤희운 (2014).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37-61.  
<http://doi.org/10.16981/kliss.45.3.201409.37>
- 윤희운 (2021). 대학도서관 경영론. 완전개정 제4판. 대구: 태일사.
- 윤희운, 이재민, 김일영, 최은중, 이경희, 박금화, 전승환 (2014).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중요성 및 타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29-50.  
<http://doi.org/10.16981/kliss.45.2.201406.29>
- 윤희운, 장덕현 (2021).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285-303. <http://doi.org/10.4275/KSLIS.2021.55.1.285>
- 전창호 (2019). 자료조직개론 1. 서울: 책의학교.
- Garner, H. (2021). Changing the Bodleian law library: from the ground to the roof.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21(2), 60-69. <http://doi.org/10.1017/s1472669621000141>
- Quon, T. & Szkudlarek, I. (2004). National library of Canada survey of holdings and projected growth.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28(2), 159-179.  
<https://doi.org/10.1016/j.lcats.2004.02.01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Jeon, Chang-Ho (2019). *Introduction to Information Organization*. 1. Seoul: Chakuihakyo.

- Kang, Bong-Suk (2022). Discussion on calculating the required shelves for arranging the school library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347-364. <http://doi.org/10.4275/KSLIS.2022.56.1.347>
- Kang, Eun-Yeong (2022).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 collaborative repository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focused on the Busan metropolitan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3), 55-76.
- Kwak, Seung-Jin, Noh, Young-Hee, Chang, Inho, Kim, Jeong-Taek, & Shin, Young-Ji (2021). A study on percep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court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3), 1-20. <http://doi.org/10.16981/kliss.52.3.202109.1>
- Kwak, Seung-Jin, Noh, Young-Hee, Kang, Eun-Yeong, Kim, Jeong-Taek, & Kwak, Woo-Jung (2020). A study on the awareness of librari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of the joint preservation archive in Chungnam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4), 27-51. <http://doi.org/10.4275/KSLIS.2020.54.4.027>
- Kwak, Seung-Jin, Noh, Young-Hee, Kang, Eun-Yeong, Kim, Jeong-Taek, & Kwak, Woo-Jung (2020).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servation library at the Chungcheongnam-do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4), 191-212. <http://doi.org/10.14699/kbiblia.2020.31.4.191>
- Noh, Young-Hee & Ro, Ji-Yoon (2021). A study on the proposal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the supreme court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4), 55-78. <http://doi.org/10.16981/kliss.52.4.202112.55>
- Noh, Young-Hee, Kang, Bong-Suk, Kwak, Seung-Jin, & Chang, Inho (2024). A study on the survey of the level of book saturation in Chungcheongbuk-do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1), 27-45. <http://doi.org/10.16981/kliss.55.1.202403.27>
- Shin, Ji-Yeon & Kim, You-Seung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29-150.
- Yoon, Hee-Yoon & Chang, Durk-Hyun (202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shared storage for public libraries in Seoul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285-303. <http://doi.org/10.4275/KSLIS.2021.55.1.285>

- Yoon, Hee-Yoon (2013).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1-74. <http://doi.org/10.16981/kliss.44.3.201309.51>
- Yoon, Hee-Yoon (2013). Feasibility analysis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5-26. <http://doi.org/10.16981/kliss.44.2.201306.5>
- Yoon, Hee-Yoon (2014).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37-61. <http://doi.org/10.16981/kliss.45.3.201409.37>
- Yoon, Hee-Yoon (2021). *Academic Library Management*. complete revised fourth edition. Daegu: Taeilsa.
- Yoon, Hee-Yoon, Lee, Jae-Min, Kim, Il-Young, Choi, Eun-Jong, Lee, Kyung-Hee, Park, Keum-Hwa, & Jeon, Seung-Hwan (2014).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29-50. <http://doi.org/10.16981/kliss.45.2.201406.29>